글라드 세화는 제주어로 “세화로 가자”라는 뜻이에요. 아이를 키우다 보니 가족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낯선 공간에서도 편하게 묵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만들게 되었어요. 안정감, 안락감이 느껴지는 감각적인 공간이랍니다.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오셔서 즐기다 가셔요. 할머니,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멋진 인테리어와 바다 뷰로 즐기실 수 있어요.

"제주에서 태어나 타지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제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.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,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을 하느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. 여유롭고 편한 공간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.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제주도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와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공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"

글라드 세화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7길 40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

숙소의 특별한 점

• 200평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 야외 마당

• 키즈카페처럼 신나게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와 실외 사계절 온수풀

• 100평의 실내 공간과 여유롭고 감각적인 인테리어

이런 여행객에게 추천

• 할머니, 할아버지, 아이와 함께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분

• 두가족이 함께 여행하고 싶은 가족

• 해수욕장을 즐기고 바로 숙소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

알아두면 좋은 사항

• 어린아이용 샤워 제품 등 유아용품이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요.

• 해녀박물관과 세화 해수욕장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어요.

• 편의점은 도보로 근처에 여러 개 있고, 하나로마트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어요.